

‘어떻게 살 것인가?’ ... 지혜 자비 키우는 수행해야

툽텐 가초 스님

호주 출신의 젊은 의사였던 에이드리언 펠트만(Adrian Roy Feldmann)은 젊은 날을 히피로서 자유분방하게 보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탐구했지만 어떤 종교에도 흥미가 없었다. 이십대 후반에 그는 갑자기 의사 일을 접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찾기 위해 러시아 신비주의자 구제프와 중국의 노자, 장자 사상에 의지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여행을 떠난다.

펠트만은 아프가니스탄의 시골을 여행하며 친구들과 환각제와 히피 음악, 철학적 토론을 즐겼지만, 얼마 안 있어 그런 삶에서도 회의를 느낀다. 자유로움과 순간적인 쾌락은 있었지만, 참된 평화와 행복이 아님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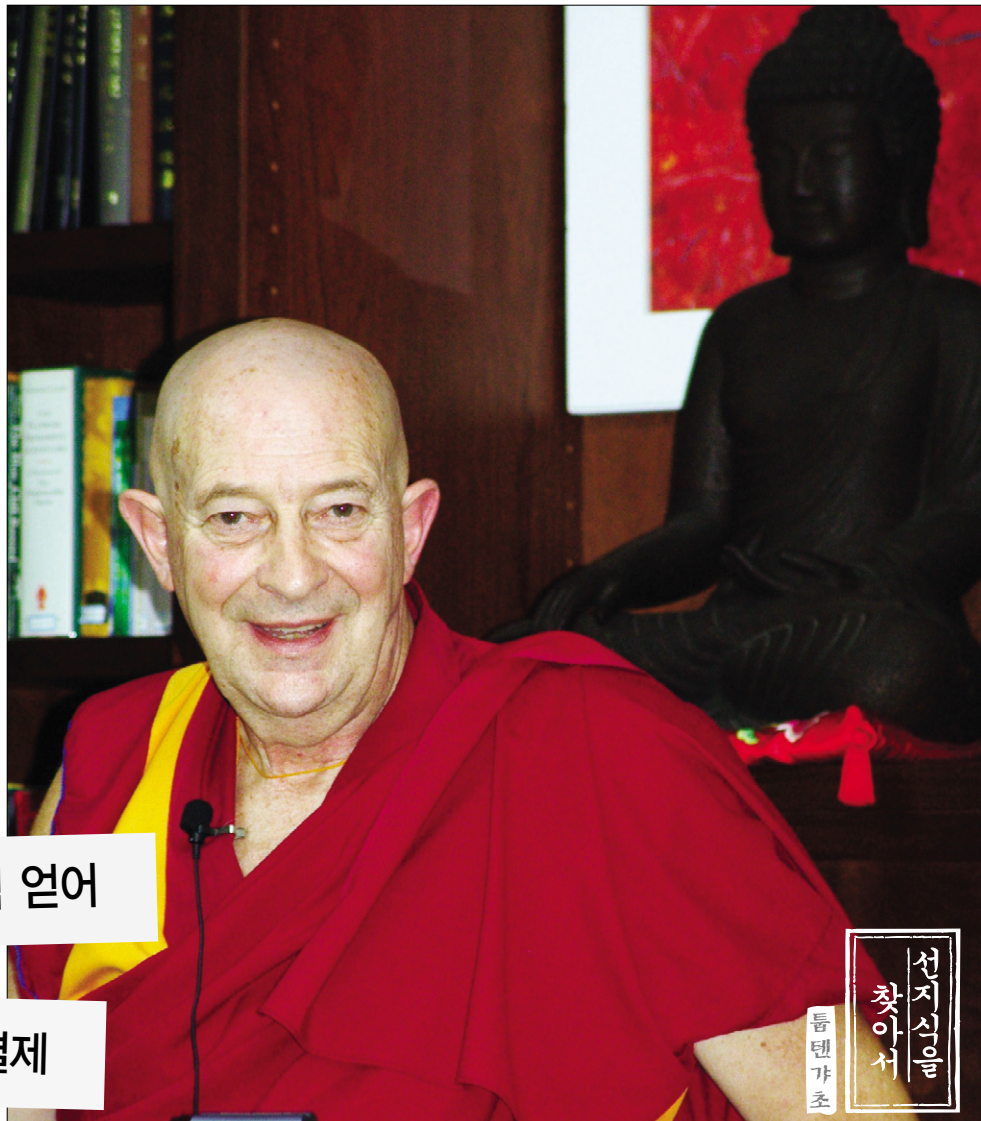
그러던 중, 펠트만은 세 친구와 함께 작은 뿔뿔에 몸을 맡기고서, 삶의 흐름에 자기 자신을 맡기라는 노자의 도(道)를 좇아 장장 1000km에 달하는 인더스 강을 여행한다. 이 여행을 마칠 즈음, 대자연에서 얻은 가르침으로 내면의 힘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다시 의사의 일상으로 돌아간 펠트만은, 그러나 예상 밖의 좌절을 맞는다. 히피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동체 삶을 도모해 보기도 하지만 음악과 마약, 자유

서 세계 곳곳에서 불법을 전해왔다. 특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섬에 홀로 안거하며 무문관 3년 결제를 무사히 회향할 수 행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히피’에서 ‘스님’으로 탈바꿈하기까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 여정을 쓴 책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 의사(원제: A Leaf in the Wind-A Life's Journey)>(호미 펴의 저자로 서구사회에 널리 알려진 가초 스님이 10월 11일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 13일 서울 조계사 내 갤러리 ‘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스님은 당신의 수행체험을 통해 얻은 참다운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스님은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하셨는데, 달라이 라마처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들었습니다.

“2000년 첫 방한 당시 나흘간 도심 안거에 참여하면서 선 수행에 대한 한국 스님들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너그럽고 자연친화적이며 예술적인 감각이 풍부하다는 느낌을



선지식들을 찾아서
툽텐가초

인더스 강 여행 후 대자연이 준 가르침으로 내면의 힘 얻어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 의사’ 출간... 3년간 무문관 결제

로운 삶도 해답이 아님을 깨닫고서, 다시 아시아를 여행하다가 1974년 3월, 마침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요판사원에서 불교 명상 강좌에 참석하게 된다. 이곳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 문제의 원인에 대해 뜻 깊은 해답을 주는 동시에 개인이 가진 고뇌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명상법을 포함한 심리학 체계로서의 불교에 감명을 받게 된다.

불교를 ‘원시적인 히말라야 미신’쯤으로 치부하던 펠트만에게 붓다의 가르침은 의사로서 고민하던 문제인, 감정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처방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르(마법)라는 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개발해야만 하는 것이기도 했다. 개인과 세상의 괴로움을 없애는 탁월한 방편으로서 붓다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그는 결혼 생활에 대한 갈망을 접고 1975년 툽텐 가초(Thubten Gyatso)라는 법명을 받고 티베트 스님이 됐다.

가초 스님은 네팔과 인도에서 네 해 동안 안거수행을 한 후, 1980년대에 프랑스에 티베트 불교사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불교교육과 명상 지도를 더 받았다. 그 뒤로 호주와 대만, 홍콩, 몽골 등지에 머물면서

받았고, 이곳이 바로 정토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삼촌이 호주 군인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인연이 있습니다. 삼촌의 딸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지요. 그리고 삼촌이 암에 걸렸을 때 한국의 참선 수행을 통해 병을 치료하고, 이 이야기를 호주에서 책으로 펴내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9년간 몽골에서 간단미술대학 김선종 교수와 김인희씨를 만나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 의사>를 한국어로 번역 출간하게 된 인연이 깊습니다.”

-티베트불교와 한국불교는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까?

“티베트불교는 우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제거한 후 명상을 통해 옳은 생각까지도 다 비우는 수행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발해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도록 합니다. 한국불교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승불교의 지향점에서 양국 불교는 결국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무문관 결제를 마쳤는데,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집중이 어려웠지만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으로 나중에는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정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의 방향을 더욱 뚜렷이 할 수 있게 된 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이번 3년 안거의 소득이라든 소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문관에서 나오기가 싫고 계속 정진하고 싶다는 점이었습니다. (웃음) 어떤 도반들은 대승의 수행자가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한 소승의 수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3년 결제의 정진력으로 몽골불교 포교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으니 제가 소승의 수행자가 아닌 점은 분명합니다. (웃음)”

-올해 3월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불교회관에서 상임법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1999년 스승님이 몽골에 갔을 때는 정치적 이유로 불교가 약해져, 몽골 불자들이 불교센터 건립

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몽골에는 선교사들이 공격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고, 불교는 미신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불교를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엔 삼일법사를 맡은 것은 그 때의 요청에 응해서 몽골불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몽골불교는 티베트불교와 같은 전통이어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1970년 히피 세대가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앞날이 밝은 의사의 길을 버리고 히피로 떠돌다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까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향의 최종 종착지를 왜 티베트로 택하셨나요?

“남들은 히피라고 불렀지만 머리가 좀 길었던 것 말고는 우리는 멀쩡했습니다. (웃음) 베트남전쟁이 한창인 당시,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선생님, 정치인, 군인 등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엉망진창인 사회를 개선할 해법을 찾기 위해 해외로 여

행을 떠났습니다. 특히 서양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동양의 정신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 역시 그러한 이유로 여행을 떠났고, 인연법에 의해 티베트불교와 두 분의 스승님을 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불교가 매우 과학적인 것이 호기심을 자극한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의사는 몸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그들 자신의 마음은 ‘혼돈(mess)’ 상태인 경우가 많았기에, 나는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히피 세대는 물론 많은 서구인들이 불교에 열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리가 아니었다면 서구 사회에 법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30여 년이 지난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도 정신적으로 궁해져서 반대 여파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서양의 히피 음악이나 영화 등에 공감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한국의 젊은 세대는 참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정신문화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문화속에는 이미 불교의 가르침이 녹아있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불교를 배울 수 있지만 서구사회에는 그런 기회가 드물지요. 한국 젊은이들이 다른 불교국가를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불교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불자들이 내면적으로 성장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스승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도의 길은 한 개인의 온전히 사적인 여행입니다. 그 길은 내심 맑고 자비롭고 영성이 뛰어난 스승이나 도반의 지도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곳 한국에는 수행을 많이 하신 큰스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제자들이 스승에게 과감하게 질문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면 좋겠지요. 산중에 계시는 스님들도 재가자와 역동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 해결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개인 차원에서 탐구·분노·어리석음을 없애나기엔 이런 개인이 모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고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고요와 평화는 사실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미 본래의 마음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무명으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명상을 통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것이 티베트불교의 수행법입니다. 모든 생명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탐구와 명상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존재를 나의 어머니로 여기는 자비심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13일 저녁, 서울 인사동 불교영역도서관에서 열린 법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설법의 형식을

2010 **최상의 지질과 최고의 품질로 보답합니다.**

달력가격 대폭인하

창립 35주년 기념 특별할인

공장 → 사찰 직거래판매

생산자 → 도매상 → 불교상회 → 사찰

불교달력 주문을 생산공장과 직거래하시면...

1. 사찰 상호인쇄할 부분을 기획담당자가 작업을 한 후 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교정을 보내드리오니 확인하신 후 발주하시면 됩니다.
2. 사찰 상호인쇄할 부분을 담당자와 의논하여 서체, 크기, 모양 등을 적절히 디자인하여 인쇄해 드립니다.

특상달력 2,500원 (100부 이상)

다이어리 600원 (200부 이상)

부처님의 꽃

국6절 1,300원 (100부 이상)

12절 1,000원 (100부 이상)

두달 700원 (100부 이상)

한지달력 1,500원 (100부 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 불교서적 / 불교달력

☎ (051) 515-8888

휴대폰 : 011-554-2988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치세요. www.buddhashopping.com / www.bori.biz

※ 총 42종의 달력,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달력카탈로그·용품카탈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